

고성신문 8면은 주별로 돌아가면서 여성, 노인, 청소년, 종교 등 4개 분야의 기획 기사를 실습니다. <여당당>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 <더 소울(The 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밑줄이 되고 있는 신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 여당당

## 여성NEWS

여성이 바로 서야 고성이 산다

여당당. 여당당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다.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세상! 미래를 여는 여성, 함께하는 평등사회”



# “수강생들과 땀 흘릴 때 보람과 행복 느껴요”

## 전국대회 3위 반암 실버체조팀 지도 윤미숙 강사

“춤을 출 때면 내 자신이 열정을 느끼니까.”

지난달 27일 열린 전국실버체조경연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반암리팀을 지도한 윤미숙 강사(50세, 사진)는 “춤을 출 때면 내 자신이 열정을 느낀다”며 “수강생들과 같이 흘리는 구슬땀이아팔로 보람과 행복”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거진읍에 위치한 고성군 체육회관을 찾아 그녀를 만났다.

세련된 건물의 2층 계단을 따라 텅빈 헬스장을 지나다보니 경쾌한 음악소리와 울동소리가 신명나게 들리고 있었다. 문을 열고 살며시 안을 보니 많지 않은 인원과 정렬해 있는 사람들 속에 구령을 힘차게 외치고 동작 하나하나에 정성과 열정적으로 전문가적 율동을 펼치고 있는 윤미숙 강사를 쉽게 발견 할 수 있었다.

구슬땀을 흠뻑 적신 수강생들과 함께 윤 강사가 얼굴에 맑은 미소를 지으며 “저 아

시죠?”라며 반갑게 맞이해 줬다.

윤 강사는 양구태생으로 현재 고성군 생활체육회 지도자로 근무하고 있다. 이곳 고성에서 근무한지가 벌써 5년째다.

그녀는 섹스폰 학원을 운영하는 남편인 박종서씨(51세)와 두 딸을 두고 있다. 그 가운데 큰 딸은 첼로 악기를 가르치는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 춤과 악기를 두루 갖춘 예술 집안이다.

윤 강사는 “유일한 위안 아닌 위안이 작은 딸”이라며 “현재 강원대학교 환경과학과 3학년에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작은 딸도 음악을 하고 싶었으나 부친의 반대로 결국 포기하게 됐다고 한다.

2006년 9월에 지인의 추천으로 춘천의 가족과 떨어져 고성군에 홀로 정착을 하게 된 윤 강사는 특별한 연고가 없는 고성에 생활하게 된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 놓는다.

“내가 속아서 왔지요! 보고 싶은 가족을

춘천에 두고 낯선 곳에서 홀로 생활을 하다니...”

처음에 낯선 곳에서의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적응하기가 많이 힘들었다는 윤 강사는 주변 동료와 지역 수강생들의 도움으로 적응을 했다고 한다.

“가족이 많이 보고 싶지 않느냐?”

는 질문에 “가족이 나를 보고 싶겠지요! 왜냐면 기사를 돌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라며 큰 웃음을 주었다.

1985년에 결혼한 윤 강사는 아이들을 낳으면서 허리 디스크에 시달리던 중 주위에서 에어로빅을 해보라는 권유에 입문했으며, 단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다.

“워낙 재미있고 제 성격에 딱인 운동이라 저한테는 최고의 운동이예요. 처음엔



딱 붙고 몸이 다 드러나는 복장에 주위 시선이 따가웠지만 지금은 누구나 부러워한답니다.”

윤 강사는 현재 에어로빅 및 라인댄스, 아쿠아로빅(수중에어로빅)을 비롯해 댄스스포츠, 방송댄스 등 춤이라면 각종 자격증을 다 갖춘 만능 춤꾼강사다.

박승근 기자

## ‘빅마마와 시스터즈’ 일냈네

여성결혼이민자 8명... 세계인의 날 기념 장기자랑 대상

### 전국대회 준비 ‘비지맘’

고성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로 구성된 ‘빅마마와 시스터즈’ 팀이 지난달 27일 춘천에서 열린 제4회 세계인의 날 기념 장기자랑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빅마마와 시스터즈’ 팀은 고성에서 거주하는 필리핀 출신 조세핀 등 8명의 이민 여성들로 구성됐으며, 이번 대회에서 흥진영의 ‘사랑의 밧데리’를 율동과 함께 선보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들은 가사일로 바쁜 가운데도 매주 토·일요일에는 거진지역의 교회와 학원 등에 모여 호흡을 맞췄으며, 오는 7월 9일 강원도 대표로 전국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또 다시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고성군다



지난달 27일 춘천에서 열린 제4회 세계인의 날 기념 장기자랑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빅마마와 시스터즈’ 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가정 방문지도사 권덕미씨(45세)는 “주민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된다”며 “7월 9일 개최되는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 여성단체 탐방 4

# “지역방재 구심점·다양한 봉사활동”

### 고성 여성연합 의용소방대

“지역의 재난 예방활동을 통한 지역방재의 구심적 역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6년 설립된 이래 5개 읍면 186명의 회원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고성 여성연합 의용소방대(대장 장명자)는 지역의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현장 지원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 산불감시 및 화재진압, 독거노인 재가봉사 뿐만 아니라 소방서의 각종 행정업무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매년 2회씩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잔치도 펼쳐 무료음식 나눔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 소외계층인 소녀소년가장 돕기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함께 정기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깨끗한 지역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고성 여성연합 의용소방대 연합대와 간성 여성 의용소방대장을 이끌고 있는 장명자 대장은 “신속한 재난과 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용소방대원들간의 화합과 단결로 지역 봉사활동에도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간성 여성의용소방대 박은영 부대장(49세)은 “적극적인 봉사정신과 희생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봉사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명자 여성연합 대장

박승근 기자